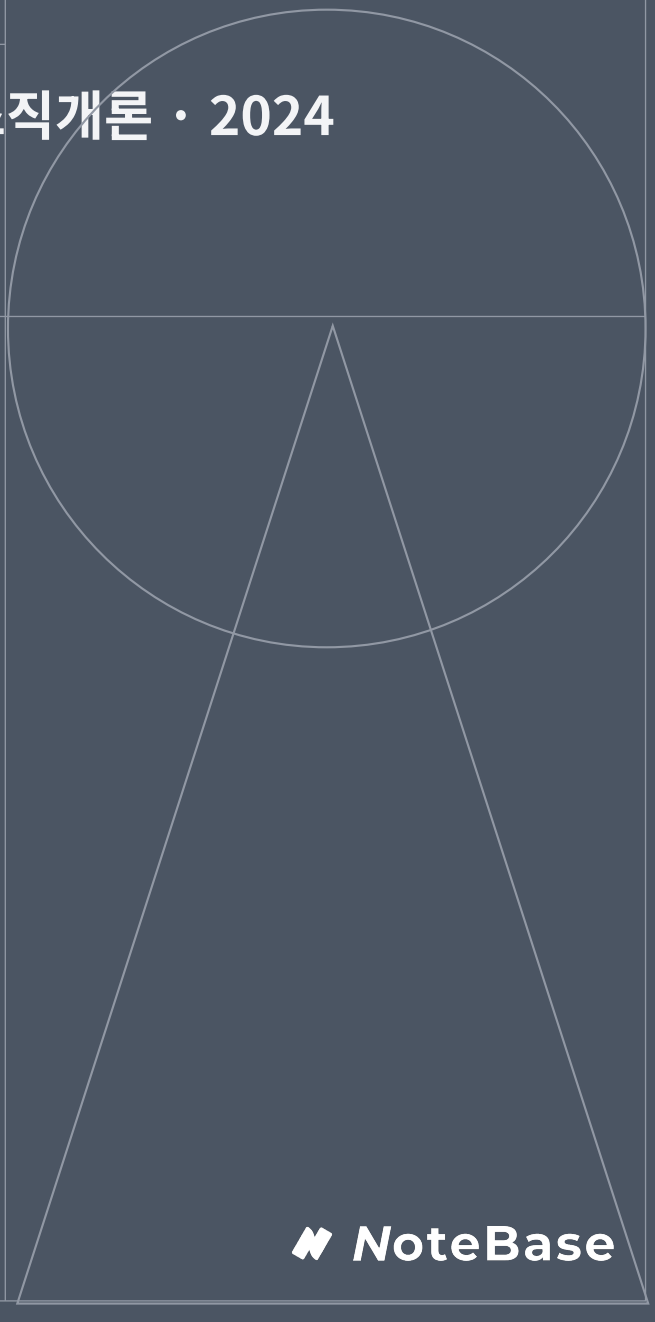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4

공무원/법원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4

문 1. 다음 중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의 '제4보조표(T4. sub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s and language famili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표의 420-480 내 제한적 범위를 가지며 특정한 언어의 주요 기호에 적용하는 보조표이다.
ㄴ. 제4보조표의 주요 기호이자 주요 구분지는 -01~-09, -1~-8(-1, -2, -3, -5, -7, -8)로 구성된다.
ㄷ. 개별 언어에 관한 자료는 420-480의 별표(*)로 식별되거나 구문으로 지시된 개별 언어를 위한 기본 번호를 사용한다.
ㄹ. 반드시 분류표에 첨가지시가 있어야 부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듀이십진분류법 제4보조표의 적용 범위, 주요 기호, 적용 조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ㄴ과 ㄹ이 옳으므로 3번이 정답이다.

핵심 개념

제4보조표는 개별 언어 및 어족의 세부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표이다. 그 기호는 단독으로 쓰지 않으며, 본표 420-490에서 별표로 식별된 개별 언어의 기본 번호 등에 첨가지시에 따라 부가한다. 주요 구분은 -01~-09와 -1, -2, -3, -5, -7, -8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ㄱ이 틀리다. ㄱ의 ‘420-480’이 잘못된 범위이며, 올바르게는 본표 420-490의 제한된 범위에 적용한다. 따라서 ㄱ, ㄴ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X — ㄱ과 ㄷ은 모두 ‘420-480’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두 문장 모두 적용 범위를 420-490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ㄱ, ㄷ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O — ㄴ의 주요 기호 -01~-09와 -1, -2, -3, -5, -7, -8은 제4보조표의 요약과 일치한다. 또한 제4보조표의 기호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표의 첨가지시에 따라 부가하므로 ㄹ도 옳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ㄷ의 ‘420-480’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420-490에서 별표로 식별되거나 지시된 개별 언어의 기본 번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ㄷ, ㄹ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420-480과 420-490의 끝 범위를 바꾸어 제시한 데 있다. 490에는 기타 언어가 포함되므로 제4보조표의 적용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또한 보조표의 기호는 단독 분류기호가 아니라 첨가지시에 따라 기본 번호에 결합하는 기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4보조표 문항에서는 먼저 범위가 420-490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호가 단독 사용되는지 또는 첨가지시에 따라 기본 번호에 부가되는지를 판단한다. 주요 기호 목록에서는 -4와 -6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T4는 420-490의 개별 언어에 지시가 있을 때 부가하며, 주요 한 자리 기호는 1·2·3·5·7·8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은 특정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규칙 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ACR2를 기반으로 하고, FRBR과 FRAD의 개념모형, 국제목록원칙(ICP)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 새로 출현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웹 환경에 사용할 수 있다.
- 아날로그와 디지털 정보자원의 다양한 유형의 자원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매체에 대한 서지 기술과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다국적 표준을 지향한다.

① MARC(MAchine-Readable Cataloging)

②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③ BIBFRAME(Bibliographic Framework Initiative)

④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AACR2를 계승하면서 FRBR·FRAD·ICP를 토대로 설계되고, 다양한 매체와 웹 환경을 수용하는 목록규칙이 RDA임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기술하고 접근점을 부여하기 위한 국제적 목록규칙이다. AACR2를 기반으로 하되 FRBR과 FRAD의 개념모형 및 국제목록원칙(ICP)을 반영하며, 디지털 자원과 웹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MARC는 서지레코드의 기계가독형 표현 형식, RDF는 웹 자원을 주어-술어-목적어 구조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형, BIBFRAME은 서지정보를 연결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서지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RDA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MARC는 서지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부호화하고 교환하는 레코드 형식이다.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목록규칙을 MARC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RDA이다.
② X — RDF는 웹상의 자원을 주어-술어-목적어의 삼중 구조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형이다.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목록규칙을 RDF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RDA이다.
③ X — BIBFRAME은 서지정보를 연결 데이터 환경에서 표현하도록 개발된 서지 프레임워크이다. 틀린 부분은 AACR2·FRBR·FRAD·ICP를 토대로 한 목록규칙을 BIBFRAME으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RDA이다.
④ O — RDA는 AACR2를 기반으로 FRBR·FRAD·ICP를 반영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원을 포괄하며 웹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목록규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MARC, RDF, BIBFRAME도 모두 서지정보의 전산화·웹 환경과 관련되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결정적 표현은 ‘AACR2 기반’, ‘FRBR과 FRAD의 개념모형’, ‘국제목록원칙(ICP)’, ‘다양한 자원의 기술과 접근점’이며, 이 조합은 RDA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무엇을 정하는 표준인지 먼저 구분한다. 자원의 기술과 접근점을 정하는 규칙이면 RDA, 레코드 부호화·교환 형식이면 MARC, 웹 데이터 표현 모형이면 RDF, 연결 데이터 기반 서지 프레임워크이면 BIBFRAME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RDA는 자원 기술 규칙, MARC는 레코드 형식, RDF는 데이터 모형, BIBFRAME은 서지 프레임워크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은 개념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가장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개념체계에 따라 비본질적 특성이 다른 개념체계에서는 본질적 특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개념은 (ㄱ)(와)과 (ㄴ)(을)를 지닌다. (ㄱ)(이)란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를 말하고, (ㄴ)(이)란 개념에 포함되는 대상들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공통속성의 합을 말한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은 다양한 유형의 대상을 그 의미범위에 포괄하기 때문에 (ㄱ)(이)가 넓다. 다수의 특성을 지닌 개념은 (ㄴ)(이)가 좁은데 이들 개념이 지시하는 대상은 실제계에서 소수로 제한된다.

① ㄱ: 유개념, ㄴ: 종개념

② ㄱ: 종개념, ㄴ: 유개념

③ ㄱ: 내포, ㄴ: 외연

④ ㄱ: 외연, ㄴ: 내포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인 외연과 그 대상들에서 추출한 공통속성의 합인 내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연: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 전체의 범위이다. 포괄적인 개념일수록 더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므로 외연이 넓다.
내포: 그 개념에 속하는 대상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속성의 합이다. 일반적으로 개념에 포함되는 속성이 많아질수록 그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은 줄어 외연이 좁아진다.
유개념과 종개념: 두 개념 사이의 상하 관계를 나타낸다. 더 넓은 상위 개념이 유개념이고, 그 아래의 더 구체적인 개념이 종개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유개념, ㄴ: 종개념'이 틀렸다. 유개념과 종개념은 개념 사이의 상하 관계이며, 대상의 범위와 공통속성의 합을 뜻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ㄱ이 외연, ㄴ이 내포이다.
② X — 'ㄱ: 종개념, ㄴ: 유개념'이 틀렸다. 종개념과 유개념의 순서를 바꾸어도 지문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ㄱ이 외연, ㄴ이 내포이다.
③ X — 'ㄱ: 내포, ㄴ: 외연'은 두 개념을 서로 바꾼 표현이다. 대상의 범위는 외연이고, 공통속성의 합은 내포이므로 올바르게는 ㄱ이 외연, ㄴ이 내포이다.
④ O — ㄱ의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는 외연이고, ㄴ의 '대상들로부터 추출한 공통속성의 합'은 내포이므로 두 빈칸에 정확히 대응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유개념·종개념도 개념의 넓고 좁음을 나타내므로 외연·내포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유개념·종개념은 개념 간 상하 관계이고, 외연·내포는 하나의 개념이 지닌 대상 범위와 속성 내용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③은 외연과 내포의 정의를 그대로 뒤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대상·범위·몇 개를 가리키는가'가 나오면 외연으로, '공통속성·특성·어떤 내용을 담는가'가 나오면 내포로 판단한다. 상위와 하위의 관계를 묻는 경우에만 유개념과 종개념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외연은 대상의 범위, 내포는 속성의 내용이다. 유개념은 상위, 종개념은 하위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접근점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목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분류목록

② 저술목록

③ 발행처목록

④ 표준번호목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목록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접근점의 유형과 그에 따른 목록 명칭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근점은 목록에서 서지 레코드를 찾아가기 위한 검색 기준이다. 접근점의 명칭에 따라 분류기호를 기준으로 한 분류목록, 발행처를 기준으로 한 발행처목록, 표준번호를 기준으로 한 표준번호목록 등으로 구분한다.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목록은 저자목록이며, 저술목록은 이러한 접근점 유형에 따른 표준적인 목록 명칭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분류목록은 분류기호를 접근점으로 삼아 자료를 찾도록 구성한 목록이므로 접근점 유형에 따른 목록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저술목록'이다. 저술은 저자가 지은 저작물을 뜻할 뿐 접근점의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저자의 이름을 접근점으로 삼는 '저자목록'이라고 해야 한다.
③ O — 발행처목록은 출판사·발행기관 등 발행처를 접근점으로 삼는 목록이므로 해당한다.
④ O — 표준번호목록은 ISBN·ISSN과 같은 표준번호를 접근점으로 삼는 목록이므로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저술'이 '저자'와 비슷하게 보여 저자 관련 접근점처럼 느껴지는 것이 함정이다. 목록의 명칭은 자료를 찾을 때 실제로 입력하거나 배열 기준으로 삼는 요소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사람의 이름을 기준으로 하면 저술목록이 아니라 저자목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앞말이 실제 검색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분류기호·발행처·표준번호·저자는 접근점이 될 수 있지만, '저술'은 저작 행위나 저작물을 가리키므로 저자 접근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람 이름으로 찾는 목록은 ‘저자목록’이며 ‘저술목록’이 아니다.

NoteBase

문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인명, 단체명, 주제명, 통일 표제 등 각종 명칭을 서지자료의 표목으로 정하는 데 일관성있게 채택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 검색에 사용되는 접근점의 형식을 제어하거나 관련된 접근점을 상호 연결하는 과정이다.
- 개체를 명확히 식별하고, 상이한 이름을 가진 동일한 개체를 모아주거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상이한 개체를 배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검색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거형접근점(Authority Access Point)

② 전거파일(Authority File)

③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

④ 전거레코드(Authority Record)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거통제라는 활동과 그 활동에 쓰이는 접근점·파일·레코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거통제는 인명·단체명·주제명·통일 표제 등의 접근점 형식을 일관되게 정하고, 동일 개체의 여러 이름과 서로 다른 개체의 같은 이름을 식별·연결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전거형접근점은 개체를 대표하도록 표준화하여 채택한 접근점이고, 전거레코드는 한 개체의 전거형접근점·이형접근점·식별 정보·관계 등을 담은 레코드이며, 전거파일은 이러한 전거레코드의 집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전거형접근점은 개체를 대표하도록 채택된 표준화된 접근점 하나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선지의 표현은 활동 전체를 뜻하는 말로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전거통제이다.
② X — 전거파일은 전거업무에서 작성된 전거레코드를 모아 둔 집합이다. 접근점의 형식을 제어하고 관련 접근점을 연결하는 과정 자체는 전거파일이 아니라 전거통제이다.
③ O — 접근점의 형식을 일관되게 제어하고, 동일 개체의 여러 이름은 모으며 동명이체는 구분하여 검색 효율을 높이는 일련의 활동은 전거통제이다.
④ X — 전거레코드는 특정 개체의 전거형접근점, 이형접근점, 식별 정보와 관계 등을 기록한 개별 레코드이다. 지문처럼 이러한 정보를 정하고 연결하는 활동은 전거레코드가 아니라 전거통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지문에 '접근점'이나 '전거'가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①·②·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정하는 데 일관성 있게 채택되도록 하는 활동', '형식을 제어하는 과정', '식별하고 모아 주거나 구분한다'는 동작 표현이 모두 결과물이 아니라 전거통제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어·연결·식별'이라는 과정이 중심이면 전거통제, 채택된 표준 접근점이면 전거형접근점, 개별 정보 묶음이면 전거레코드, 레코드들의 집합이면 전거파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통제는 활동, 접근점은 표준 명칭, 레코드는 개별 기록, 파일은 레코드의 집합이다.

NoteBase

문 6. 한국십진분류표(KDC) 제6판을 적용한 '영국 공무원제도'에 대한 분류번호로 가장 옳은 것은?

지역구분표
-24 영국, 아일랜드

350.3 인사행정
.31 공무원제도

351-357 각국 중앙행정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 후, 350.1-.8과 같이 기호를 부가하여 세분한다.

① 351.2431
② 351.24031
③ 352.431
④ 352.4031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각국 중앙행정의 분류번호를 만들 때 지역구분기호를 먼저 적용하고, 그 뒤 인사행정의 세부기호를 이어 붙이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영국의 지역구분기호 -24를 확인한다.
2. 각국 중앙행정 351-357의 전개 방식에 따라 35에 지역기호 24를 결합하여 352.4를 만든다.
3. 공무원제도 350.31에서 350.을 제외한 세부기호 31을 취한다.
4. 352.4 뒤에 31을 부가하여 352.431을 만든다.

지역기호로 국가별 중앙행정 번호를 먼저 만든 결과가 세부 행정기능 기호를 붙일 바탕이 되므로 이 순서를 따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351.2431은 지역기호 24를 351 뒤에 그대로 붙인 점이 틀렸다. 각국 중앙행정은 35에 지역기호 24를 적용하여 먼저 352.4로 전개하므로, 올바른 번호는 352.431이다.

② X — 351.24031은 국가별 번호를 351.24로 만든 것과 공무원제도의 세부기호를 031로 붙인 것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지역기호로 352.4를 만든 뒤 350.31의 세부기호 31을 붙여 352.431로 분류한다.

③ O — 영국의 국가별 중앙행정 번호 352.4에 공무원제도의 세부기호 31을 부가한 352.431이 정확하다.

④ X — 352.4까지는 맞지만 뒤에 031을 부가한 점이 틀렸다. 350.31에서 부가하는 기호는 31이므로 올바르게는 352.431이다.

오답 포인트

지역기호 -24를 351 뒤에 단순히 붙여 351.24로 만드는 오류와, 350.31에서 350.을 뺀 뒤에도 불필요한 0을 남겨 031을 붙이는 오류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국 중앙행정 문항은 먼저 35에 지역구분기호를 적용하여 국가별 번호를 만들고, 그 결과 뒤에 350의 해당 세부항목에서 350.을 제외한 기호를 이어 붙인다.

암기 포인트

영국 -24 → 중앙행정 352.4 → 공무원제도 31 부가 → 352.431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자료분류표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분류표는 주로 전문도서관이나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 등에 채택되며 UDC, CC, EC 등이 있다.

② 기호법 혹은 기호의 종류에 따라서 십진식 분류법(표)과/와 비십진식 분류법(표)으로/로 구분되며, 십진식 분류법(표)은/는 조기성이 풍부하고 비십진식 분류법(표)은/는 전개 능력이 뛰어나다.

③ 지식의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분류표와 특수분류표 등으로 구분되며, DDC, NDC, SC 등은 일반분류표에 포함된다.

④ 구조원리에 따라 열거식 분류법(표)과/와 분석합성식 분류법(표) 등으로 구분되고, 분석합성식 분류법(표)은/는 자료의 주제를 분석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패싯기호를 조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료분류표를 적용 범위, 기호법, 구조 원리라는 서로 다른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분류표는 지식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분류표이고, 특수분류표는 특정 주제 분야를 상세하게 전개한 분류표이다.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분류표와 특수분류표를, 기호의 구성 방식에 따라 십진식과 비십진식을, 주제 전개 방식에 따라 열거식과 분석합성식을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일반분류표는 주로 전문도서관이나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 등에 채택된다'는 부분이다. UDC, CC, EC는 지식 전 분야를 다루는 일반분류표의 예이지만,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전문도서관이나 단과대학 도서관에는 그 분야를 세밀하게 전개한 특수분류표가 주로 적합하다.
② O — 십진식 분류표는 같은 숫자를 같은 의미로 반복하여 쓰는 조기성을 활용하기 쉽고, 비십진식 분류표는 문자와 숫자 등 더 다양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 전개 능력이 크다.
③ O — 지식의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분류표와 특수분류표로 나눌 수 있으며, DDC, NDC, SC는 지식 전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분류표에 속한다.
④ O — 구조 원리에 따라 열거식 분류표와 분석합성식 분류표로 구분한다. 분석합성식은 복합 주제를 여러 패싯으로 분석한 뒤 각 패싯의 기호를 합성하여 분류기호를 만든다.

오답 포인트

①은 UDC, CC, EC가 일반분류표라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일반분류표의 주된 채택 기관을 전문도서관·단과대학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분류표의 사례와 이용 기관을 한 문장에 섞어 일부만 맞게 만든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지 확인한다. 지식의 범위는 일반·특수, 기호의 구성은 십진식·비십진식, 주제 전개 방식은 열거식·분석합성식으로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전 분야는 일반분류표, 특정 분야의 세밀한 전개는 특수분류표이다. 분석합성식은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한 뒤 기호를 합성한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분류법의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① 미의회도서관분류법(LCC)

② 듀이십진분류법(DDC)

③ 한국십진분류법(KDC)

④ 콜론분류법(CC)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열거식 분류법과 분석합성식 분류법의 성격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열거식 분류법은 가능한 주제를 분류표에 미리 열거해 두고 해당 기호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LCC, DDC, KDC가 이에 해당한다.
분석합성식 분류법은 복합 주제를 기본 개념이나 패싯으로 분석한 뒤, 정해진 순서와 기호 결합 규칙에 따라 분류기호를 합성하는 방식이다. CC가 대표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미의회도서관분류법(LCC)은 주제를 분류표에 열거하는 열거식 분류법이므로 DDC·KDC와 같은 쪽이다. 이 선지를 성격이 다른 분류법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열거식 분류법으로 분류한다.
② X — 듀이십진분류법(DDC)은 지식 분야를 십진식 계층 구조로 전개한 열거식 분류법이다. 이 선지를 분석합성식 분류법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열거식 분류법으로 분류한다.
③ X — 한국십진분류법(KDC)은 DDC의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전개한 열거식 분류법이다. 이 선지를 CC와 같은 분석합성식 분류법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열거식 분류법으로 분류한다.
④ O — 콜론분류법(CC)은 랑가나단이 고안한 대표적인 패싯 분류법으로, 복합 주제를 분석한 뒤 각 패싯의 기호를 합성한다. 따라서 나머지 세 열거식 분류법과 성격이 가장 다르다.

오답 포인트

LCC·DDC·KDC도 보조표나 기호 결합을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CC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분류법의 기본 성격을 묻는 경우에는 LCC·DDC·KDC를 열거식, CC를 분석합성식 패싯 분류법으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표에 주제를 미리 전개해 놓았는지, 주제를 패싯으로 분석하여 기호를 합성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LCC·DDC·KDC는 전자, CC는 후자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LCC·DDC·KDC는 열거식, CC는 분석합성식 패싯 분류법이다.

NoteBase

문 9.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목록 규칙과 해당 명칭이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최초의 국제적 목록규칙으로, ALA 목록규칙에 영향을 미쳤다.
ㄴ. 사전체 목록규칙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한 목록규칙이다.
ㄷ.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목록규칙으로, 종합목록을 고려한 공동목록 작성을 위한 규칙이다.
ㄹ. 기술에 관한 구두법(혹은 구두점)을 ISBD에 준수하여 작성되었고, 기술부의 서지 기술 수준을 3등분하고 있다.

① ㄱ - Jewett 목록규칙(제이트 목록규칙)
② ㄴ - Cutter 목록규칙(커트의 목록규칙)
③ ㄷ - AA code(Anglo-American code)
④ ㄹ - AACR(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목록규칙의 성격과 역사적 특징을 Jewett 목록규칙, Cutter 목록규칙, AA code, AACR2의 명칭에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AA code: 영국과 미국이 함께 제정한 최초의 국제적 목록규칙으로, 뒤의 ALA 목록규칙에 영향을 주었다.
Cutter 목록규칙: 사전체 목록을 위한 규칙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중심에 두었다.
Jewett 목록규칙: 미국에서 처음 발행된 목록규칙으로, 종합목록을 염두에 둔 공동목록 작성을 지향하였다.
AACR2: ISBD의 구두법을 채택하고 기술의 상세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을 Jewett 목록규칙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ㄱ의 '최초의 국제적 목록규칙'과 'ALA 목록규칙에 영향'은 AA code에 해당한다.
② O — Cutter 목록규칙은 사전체 목록규칙이며, 목록 이용자가 저자·표제·주제로 자료를 찾고 관련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중시하였다.
③ X — ㄷ을 AA code와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종합목록을 위한 공동목록 작성을 고려한 규칙은 Jewett 목록규칙이다.
④ X — ㄹ을 AACR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ISBD 구두법을 따르고 기술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한 규칙은 AACR2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Jewett 목록규칙과 AA code의 역사적 위치를 서로 바꾸고, AACR과 AACR2를 같은 규칙처럼 보이게 한 것이 함정이다. 특히 '미국 최초·공동목록'은 Jewett, '최초의 국제적 규칙·ALA에 영향'은 AA code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의 표지어를 먼저 찾는다. '사전체·이용자 편의'는 Cutter, '미국 최초·종합목록·공동목록'은 Jewett, '국제적·ALA에 영향'은 AA code, 'ISBD 구두법·기술 수준 3단계'는 AACR2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Cutter=사전체·이용자, Jewett=미국 최초·공동목록, AA code=국제적, AACR2=ISBD·3단계이다.

NoteBase

문 10.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의 주기(Note)에 대한 설명이다. '(A) Notes That Describe What Is Found in a Class(해당 주제에서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주기)'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범위주기(scope note)는 분류 기호의 의미가 표목에 나타난 의미보다 더 넓은지 더 좁은지를 설명한다.

② 포함주기(including note)는 주제의 의미가 표목보다 좁거나 넓은 경우와 중복될 때 그 아래에 포함하도록 지시한다.

③ 분류지시 주기(class-here note)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저작(works)과 포괄적(comprehensive) 저작이 분류되어야 하는 위치를 설명한다.

④ 해당 주기는 본표 및 보조표 아래에 현재 분류기호에서 발견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주기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DDC 제23판에서 현재 분류기호에 무엇이 분류되는지를 알려 주는 범위주기, 포함주기, 분류지시 주기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범위주기(scope note)는 표목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분류기호의 적용 범위와 의미를 밝혀 주는 주기이다.
포함주기(including note)는 해당 분류기호에 포함되지만 그 기호가 나타내는 개념 전체보다 범위가 좁아 독립적인 분류 위치를 갖지 못하는 주제를 열거한다.
분류지시 주기(class-here note)는 해당 분류기호에 직접 분류할 주요 주제나 학제 간 저작·포괄적 저작의 위치를 지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범위주기는 표목과 실제 분류기호의 의미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그 의미가 더 넓은지 또는 더 좁은지를 설명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주제의 의미가 표목보다 좁거나 넓은 경우와 중복될 때'이다. 포함주기는 넓거나 중복되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주기가 아니라, 해당 분류기호에 포함되는 주제 가운데 그 기호가 나타내는 개념보다 범위가 좁고 독립적인 분류 위치를 갖지 못한 주제를 열거하는 주기이다.
③ O — 분류지시 주기는 특정 주제뿐 아니라 학제 간 저작과 포괄적 저작을 어느 분류기호에 분류할지를 알려 준다.
④ O — '해당 주제에서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주기'는 본표와 보조표의 현재 분류기호 아래에서 실제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 주는 주기들의 범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범위주기의 설명인 '표목보다 넓거나 좁은 의미'를 포함주기의 기능과 섞었다. 포함주기의 핵심은 범위의 양방향 비교가 아니라 현재 분류기호에 들어가는 더 좁은 주제를 열거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목과 분류기호의 의미 범위를 해명하면 범위주기, 현재 기호에 포함되는 더 좁은 주제를 열거하면 포함주기, 주요 주제나 학제 간·포괄적 저작의 분류 위치를 지시하면 분류지시 주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범위주기는 의미의 경계, 포함주기는 더 좁은 주제의 열거, 분류지시 주기는 주요·학제 간·포괄적 저작의 위치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 개정판)의 디렉토리(Direct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한 레코드에서 각 가변길이 필드의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 위치를 나타내는 일련의 항목이다.

② 디렉토리는 해당 레코드의 25번째 자수위치부터 시작된다. 디렉토리는 레코드 내에 있는 고정길이 필드마다 하나씩 배정된 '디렉토리 항목'으로 구성된다.

③ 가변길이 제어필드에 대한 디렉토리 항목은 첫 번째로 나타나며 표시기호 순에 의해 순차대로 배열된다.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에 대한 항목은 표시기호에 의해 순차대로 배열된다.

④ 저장된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순서는 디렉토리 항목의 순서대로 배열된다. 마지막 디렉토리 항목은 필드 종단기호로 끝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ORMARC 레코드에서 디렉토리가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하며, 디렉토리 항목과 실제 필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디렉토리는 리더 다음에 놓이며 각 가변길이 필드의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 시작위치를 기록한 고정길이 항목들의 집합이다. 디렉토리 항목은 가변길이 제어필드가 먼저, 가변길이 데이터필드가 그다음에 오며 각 집단 안에서는 표시기호 순으로 배열된다. 실제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저장 순서는 디렉토리 항목의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디렉토리 항목이 담는 위치 정보는 막연한 '필드 위치'가 아니라 가변길이 필드의 '필드 시작위치'이다. 올바르게는 각 가변길이 필드의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 시작위치를 나타내는 일련의 고정길이 항목이라고 해야 한다.

② X
디렉토리가 해당 레코드의 25번째 자수위치부터 시작한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디렉토리 항목은 고정길이 필드마다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변길이 필드마다 하나씩 배정된다. 올바르게는 '해당 레코드의 25번째 자수위치부터 시작하며, 각 가변길이 필드마다 하나의 디렉토리 항목이 배정된다'이다.

③ O
가변길이 제어필드의 디렉토리 항목이 먼저 나오고 표시기호 순으로 배열되며, 이어지는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항목도 표시기호 순으로 배열되므로 옳다.

④ X
마지막 디렉토리 항목이 필드 종단기호로 끝난다는 부분은 맞지만, 실제로 저장된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순서가 디렉토리 항목의 순서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 올바르게는 '저장된 가변길이 데이터필드의 순서는 디렉토리 항목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필드 위치'와 '필드 시작위치'를, ②는 디렉토리 항목 자체의 고정길이성과 그 항목이 대응하는 가변길이 필드를 혼동하였다. ④는 끝의 필드 종단기호만 맞게 제시한 뒤 실제 필드 저장 순서까지 디렉토리 순서와 같다고 한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디렉토리는 '가변길이 필드의 표시기호·길이·시작위치'를 찾는 색인으로 본다. 이어서 '제어필드가 먼저, 데이터필드가 다음, 각 집단은 표시기호 순'인지 확인하고, 디렉토리 순서와 실제 필드 저장 순서는 별개임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디렉토리는 가변필드의 표시기호·길이·시작점, 배열은 제어필드 먼저·표시기호 순, 실제 저장 순서는 별개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제시한 단행본의 으뜸정보원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만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ㄴ. 발행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권두
ㄷ. 판사항 :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권두, 책등
ㄹ. 총서사항 : 그 도서 자체에서
ㅁ.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 그 도서 자체에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단행본의 기술사항마다 허용되는 정보원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표제면, 판권기, 표지에서 채기한다.
판사항·발행사항: 표제면, 판권기, 표지, 약표제면, 권두, 책등에서 채기한다.
총서사항: 그 도서 자체에서 채기한다.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어디에서나 채기할 수 있다.
따라서 ㄷ과 ㄹ만 옳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ㄱ에서 잘못된 표현은 '약표제면'이며,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정보원은 표제면·판권기·표지이다. ㄴ은 발행사항의 정보원에서 '책등'을 빠뜨렸으며, 올바른 범위는 표제면·판권기·표지·약표제면·권두·책등이다.
② X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다. ㄴ은 끝에 '책등'을 더해야 올바른 연결이 된다.
③ O — ㄷ의 판사항 정보원에는 표제면·판권기·표지·약표제면·권두·책등이 모두 포함되고, ㄹ의 총서사항은 그 도서 자체에서 채기하므로 둘 다 옳다.
④ X — ㄹ은 옳지만 ㅁ이 틀렸다. ㅁ의 '그 도서 자체에서'는 '어디에서나'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과 ㄷ은 정보원 목록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ㄴ만 '책등'이 빠져 있다. 또한 총서사항은 '그 도서 자체',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은 '어디에서나'라는 범위 차이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장의 정보원을 앞에서부터 대조하고 마지막 항목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판사항·발행사항은 책등까지, 총서사항은 도서 자체,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은 어디에서나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표책표, 판·발은 책등까지, 총서는 책 자체, 표준번호는 어디서나이다.

NoteBase

문 13. 종류, 언어, 문학 등 일부 주류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자료분류 및 기호조합을 한다. 자료분류 및 기호조합에 대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저자의 관점
ㄴ. 물리적 매체나 형태
ㄷ. 주제
ㄹ. 서지적 표현형식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ㄷ - ㄹ - ㄱ - ㄴ
④ ㄹ - ㄱ - ㄴ -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료를 분류하고 분류기호를 조합할 때 적용하는 네 가지 고려 항목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주제(ㄷ) — 자료가 무엇을 다루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한다.
2. 서지적 표현형식(ㄹ) — 사전·연감·정기간행물처럼 내용이 표현된 서지적 형식을 다음으로 고려한다.
3. 저자의 관점(ㄱ) — 같은 주제라도 저자가 어느 입장이나 관점에서 다루었는지를 그다음에 반영한다.
4. 물리적 매체나 형태(ㄴ) — 인쇄물·녹음자료 등 자료가 담긴 물리적 매체나 형태는 마지막에 고려한다.

우선순위는 ㄷ → ㄹ → ㄱ → ㄴ이다. 자료의 핵심 내용인 주제를 먼저 정하고, 내용의 표현 방식과 관점을 차례로 반영한 뒤, 내용 자체가 아닌 물리적 매체나 형태를 가장 나중에 고려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 ㄴ → ㄷ → ㄹ은 저자의 관점과 물리적 형태를 주제보다 앞세운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주제(ㄷ)를 가장 먼저 두고 ㄷ → ㄹ → ㄱ → ㄴ의 순서로 배열한다.
② X — ㄴ → ㄷ → ㄹ → ㄱ은 물리적 매체나 형태(ㄴ)를 첫째로 둔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물리적 매체나 형태를 마지막에 두어 ㄷ → ㄹ → ㄱ → ㄴ으로 배열한다.
③ O — ㄷ → ㄹ → ㄱ → ㄴ은 주제, 서지적 표현형식, 저자의 관점, 물리적 매체나 형태의 우선순위와 일치한다.
④ X — ㄹ → ㄱ → ㄴ → ㄷ은 주제(ㄷ)를 마지막에 둔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주제를 첫째로 두어 ㄷ → ㄹ → ㄱ → ㄴ으로 배열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저자의 관점이나 자료의 외형이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이를 먼저 고르면 틀린다.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는 내용의 핵심인 주제가 첫째이고, 물리적 매체나 형태가 마지막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 우선순위 문제에서는 먼저 자료의 핵심 내용인 주제를 찾고, 서지적 표현형식과 저자의 관점을 차례로 연결한 다음, 물리적 매체나 형태를 마지막에 배치한다.

암기 포인트

주제 → 서지형식 → 관점 → 물리형태, 즉 '주·서·관·물' 순서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중 MARC 21(MAchine-Readable Cataloging 2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45(Title Statement)에서 식별기호 $a(Title), $b(Remainder of title), $c(Statement of responsibility, etc)는 모두 반복 작성이 가능하다.

② 008(Fixed-Length Data Elements)에서 자료유형은 총 8개, 공통(All materials), BK(Books), CR(Continuing resources), CF(Computer files), MP(Maps), MU(Music), VM(Visual materials), MX(Mixed materials)로 구성된다.

③ 식별기호에서 반복사용 가능한 경우, MARC 21에서는 (R)로 작성된다.

④ 리더는 레코드 성질, 레코드 처리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정의하는 24자리의 부호 값으로 구성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MARC 21 서지 형식에서 필드와 식별기호의 반복 가능 여부, 008 필드의 자료유형별 구성, 리더의 길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ARC 21은 서지 레코드의 각 데이터 요소를 태그, 지시기호, 식별기호 등으로 구조화한 형식이다. R은 반복 가능(Repeatable), NR은 반복 불가(Not Repeatable)를 뜻한다. 008은 40자리의 고정길이 데이터 요소이며 공통 부분과 7개의 자료유형별 부분으로 설명된다. 리더는 레코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24자리 고정 필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245(Title Statement)의 식별기호 $a(Title), $b(Remainder of title), $c(Statement of responsibility, etc.)는 모두 NR, 즉 반복 불가이다. 틀린 표현은 '모두 반복 작성이 가능하다'이며, 올바르게는 '$a, $b, $c는 모두 반복 작성할 수 없다'이다.
② O — 008은 공통(All materials) 부분과 BK(Books), CR(Continuing resources), CF(Computer files), MP(Maps), MU(Music), VM(Visual materials), MX(Mixed materials)의 7개 자료유형별 부분으로 구성되어 총 8개 구분으로 제시된다.
③ O — MARC 21 형식표에서 반복 가능한 필드나 식별기호는 R로, 반복 불가능한 것은 NR로 표시한다.
④ O — 리더(Leader)는 각 서지 레코드의 처음 24자리(00~23)를 차지하는 고정 필드로, 레코드의 성질과 처리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숫자나 부호 값으로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①은 245 필드 안에 여러 데이터 요소가 올 수 있다는 사실과 각 식별기호 자체의 반복 가능 여부를 혼동하게 만든다. 245의 $n과 $p 등에는 R 표시가 있지만, 이 선지에 제시된 $a, $b, $c는 모두 NR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ARC 21의 반복 여부 문제에서는 필드 전체와 개별 식별기호를 나누어 확인한다. 해당 요소 옆의 R·NR 표기를 직접 대응시키고, 008은 공통 1개와 자료유형별 7개, 리더는 24자리라는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245의 $a·$b·$c는 NR, 008은 공통 1+유형별 7, 리더는 24자리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DDC 23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Collection of English poems』의 분류기호는?

820 English and Old English
.1-.9 Standard subdivisions

821-828 Subdivisions for specific forms of English literature

① 820.8
② 823.08
③ 821.08
④ 820.81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영문학의 특정 문학 형식과 문헌의 성격을 순서대로 반영하여 DDC 분류기호를 합성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820은 영문학 및 고대영문학 전반을 나타내고, 821은 그중 영시를 나타낸다. 따라서 영어로 된 시의 집서는 먼저 특정 형식인 영시의 기호 821을 정한 뒤 집서를 나타내는 08을 부가하여 821.08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820.8은 영문학 전반을 기준으로 한 기호여서 자료의 특정 형식인 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820이 아니라 영시를 뜻하는 821을 사용하여 821.08로 고쳐야 한다.
② X — 823은 영어 소설을 나타내므로 poems와 맞지 않는다. 소설 기호 823이 아니라 영시 기호 821을 사용하여 821.08로 고쳐야 한다.
③ O — 821은 English poetry를 나타내고, 여기에 집서를 나타내는 08을 부가한 821.08은 영어 시집에 해당한다.
④ X — 820.81은 특정 문학 형식의 기호를 먼저 정한 뒤 집서 기호를 부가하는 순서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먼저 821로 영시를 특정하고 08을 부가한 821.08이 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목의 Collection만 보고 820.8을 고르거나, 820에 시를 뜻하는 1을 뒤에 붙여 820.81로 만드는 것이 함정이다. 자료의 구체적인 문학 형식인 poems를 먼저 확인하여 821을 선택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학 자료의 분류기호는 먼저 언어와 문학 형식을 확인한다. English poems이면 821을 잡고, 그다음 집서라는 자료의 성격을 나타내는 08을 부가하여 821.08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English poetry는 821, 영어 시집은 821에 08을 붙인 821.08이다.

문 16. 다음 중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제시한 판표시 표기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료상의 표기>: 增補改訂版, <기술상의 표기>: 증보개정판

② <자료상의 표기>: 둘째판, <기술상의 표기>: 둘째판

③ <자료상의 표기>: Second Edition, <기술상의 표기>: 2nd ed.

④ <자료상의 표기>: Version 6.1, <기술상의 표기>: Version 6.1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판표시를 자료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경우와 숫자·약어를 표준화하여 기술하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판표시는 자료에 나타난 언어와 문자에 따라 기술한다. 한자로 표시된 판표시는 한글로 바꾸지 않고 그 문자 그대로 기술하며, 영문 판차처럼 서수와 정형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표준 약어를 사용한다. 판차가 아니라 판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현은 자료에 표시된 형태를 유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增補改訂版'을 '증보개정판'으로 한글화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자료에 나타난 한자를 유지하여 '增補改訂版'으로 기술한다.
② O — 한글로 적힌 서수 판표시 '둘째판'은 자료에 나타난 형태 그대로 '둘째판'으로 기술한다.
③ O — 영문 서수 'Second'는 아라비아 숫자 서수 '2nd'로 바꾸고, 'Edition'은 표준 약어 'ed.'로 기술하므로 '2nd ed.'가 옳다.
④ O — 'Version 6.1'은 정형적인 판차 서수를 약어화한 표현이 아니라 자료에 제시된 버전 표시이므로 'Version 6.1'로 그대로 기술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한자를 독음을 따라 한글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판표시는 번역하거나 음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자로 기술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반면 ③은 영문 정형 판표시이므로 숫자와 약어를 표준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판표시의 문자와 표현 유형을 확인한다. 한자·한글의 판표시는 자료상의 문자를 유지하고, 영문 서수와 Edition 같은 정형어는 아라비아 숫자와 표준 약어로 바꾸며, Version과 같은 고유 표현은 그대로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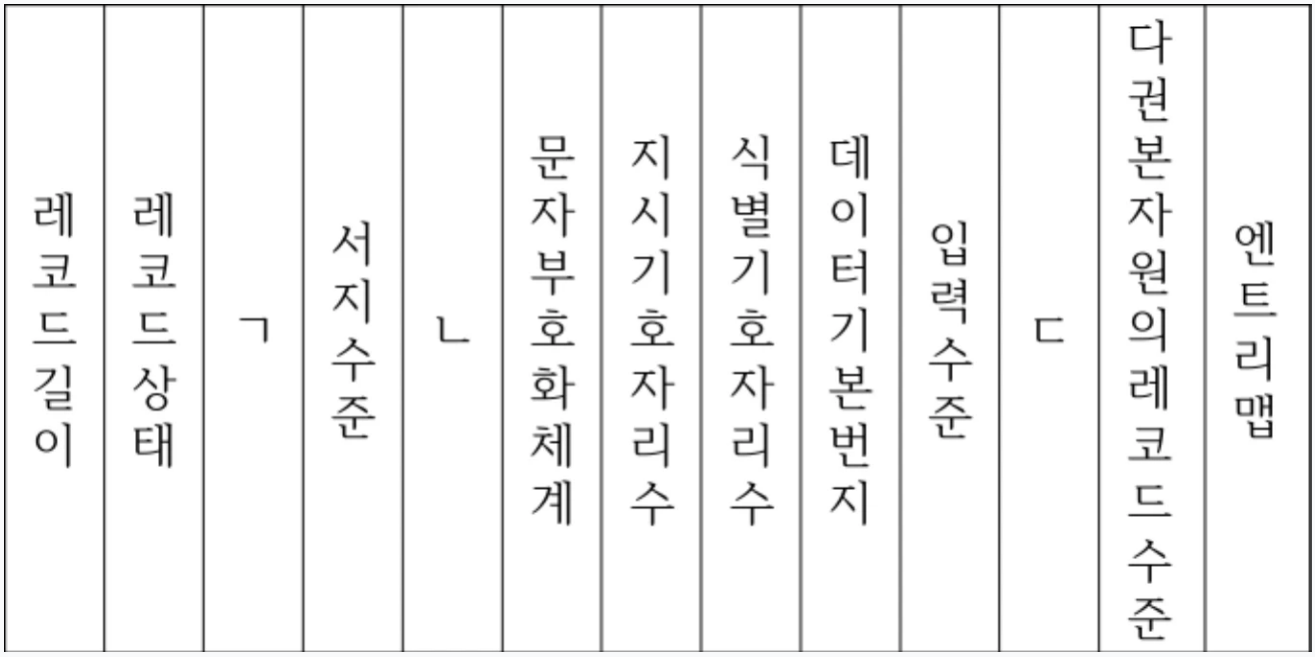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자 판표시는 문자 그대로, 영문 서수 판표시는 숫자와 약어로 기술한다.

NoteBase

문 17.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23 개정판)의 리더의 데이터요소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ㄱ: 레코드유형, ㄴ: 제어유형, ㄷ: 목록기술형식

② ㄱ: 레코드유형, ㄴ: 제어형식, ㄷ: 목록형식

③ ㄱ: 레코드형태, ㄴ: 제어형식, ㄷ: 서지기술형식

④ ㄱ: 레코드형태, ㄴ: 제어유형, ㄷ: 서지형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ORMARC 리더 도식에서 각 빈칸의 위치에 대응하는 데이터요소명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레코드상태 다음의 ㄱ은 레코드유형, 서지수준 다음의 ㄴ은 제어유형, 입력수준 다음의 ㄷ은 목록기술형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레코드유형, ㄴ은 제어유형, ㄷ은 목록기술형식이므로 도식의 세 빈칸과 모두 일치한다.
② X — ㄱ의 레코드유형만 맞는다. ‘ㄴ: 제어형식’은 ‘ㄴ: 제어유형’으로, ‘ㄷ: 목록형식’은 ‘ㄷ: 목록기술형식’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세 명칭이 모두 정확하지 않다. ‘ㄱ: 레코드형태’는 ‘레코드유형’, ‘ㄴ: 제어형식’은 ‘제어유형’, ‘ㄷ: 서지기술형식’은 ‘목록기술형식’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ㄴ의 제어유형만 맞는다. ‘ㄱ: 레코드형태’는 ‘ㄱ: 레코드유형’으로, ‘ㄷ: 서지형식’은 ‘ㄷ: 목록기술형식’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유형·형태', '제어유형·제어형식', '목록기술형식·서지기술형식·서지형식'을 비슷하게 바꾸어 놓았다. 도식의 위치뿐 아니라 KORMARC가 사용하는 정확한 데이터요소명까지 일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더 도식을 왼쪽부터 읽으면서 '레코드상태 다음=레코드유형', '서지수준 다음=제어유형', '입력수준 다음=목록기술형식'의 위치 관계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빈칸 순서는 '레코드유형－제어유형－목록기술형식'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리재철의 저자기호표(제5표)에 대한 내용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저자기호의 기본기호는 문자기호와 숫자기호로 이루어진다. 문자기호는 표목으로 채택된 (ㄱ)의 첫 자를 그대로 따고, 둘째 자의 (ㄴ)을 표에서 숫자로 기호화하여 조합한다.
- 기호화될 글자가 외자인 경우에는 문자기호 다음에 (ㄷ)를 한 후, 그 다음의 글자의 자음만 숫자기호화한다.

① ㄱ: 저자명, ㄴ: 자음, ㄷ: 온표

② ㄱ: 저자명과 서명, ㄴ: 모음, ㄷ: 쉼표

③ ㄱ: 저자명, ㄴ: 자음 또는 모음, ㄷ: 온표

④ ㄱ: 저자명이나 서명, ㄴ: 자음과 모음, ㄷ: 쉼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리재철 저자기호표 제5표에서 기본기호를 만드는 대상과 둘째 글자의 기호화 요소, 외자 표목의 처리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저자기호는 표목으로 채택된 저자명이나 서명의 첫 자를 문자기호로 삼고, 둘째 자의 자음과 모음을 표의 숫자로 바꾸어 결합한 기호이다. 기호화할 표목이 외자이면 문자기호 뒤에 쉼표를 붙인 다음, 그다음 글자의 자음만 숫자기호화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저자명'으로만 한정하고, ㄴ을 '자음'만으로 제시하며, ㄷ을 '온표'로 제시한 점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ㄱ은 '저자명이나 서명', ㄴ은 '자음과 모음', ㄷ은 '쉼표'이다.

② X
ㄱ의 '저자명과 서명'과 ㄴ의 '모음'이 틀리다. 저자명과 서명을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표목으로 채택된 저자명이나 서명 중 하나의 첫 자를 쓰며, 둘째 자에서는 모음만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함께 숫자기호화한다. ㄷ의 '쉼표'는 옳다.

③ X
ㄱ의 '저자명', ㄴ의 '자음 또는 모음', ㄷ의 '온표'가 틀리다. ㄱ은 '저자명이나 서명', ㄴ은 둘 중 하나를 택한다는 뜻의 '자음 또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과 모음', ㄷ은 '쉼표'가 되어야 한다.

④ O
표목으로 채택된 저자명이나 서명의 첫 자를 문자기호로 삼고, 둘째 자의 자음과 모음을 숫자기호화한다. 외자 표목이면 문자기호 뒤에 쉼표를 붙이고 그다음 글자의 자음만 숫자기호화하므로 세 항목이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저자명과 서명'은 두 요소를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므로 틀리고, 실제 기준은 표목으로 채택된 '저자명이나 서명'이다. 또한 일반적인 둘째 자는 '자음과 모음'을 함께 기호화하지만, 외자 처리 뒤에 이어지는 글자는 '자음만' 기호화한다는 차이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을 '대상－둘째 자의 요소－외자 처리 기호'의 순서로 나누어 판단한다. 기본형은 '저자명이나 서명－자음과 모음'이고, 외자이면 '쉼표－다음 글자의 자음만'으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기본형은 '저자명이나 서명, 둘째 자의 자음과 모음', 외자형은 '쉼표, 다음 글자의 자음만'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의 구두점과 구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ISBD에서 규정한 요소와 순서, 구두점을 준용하고 있다.

② 기술 요소 간의 구분 표시로서의 구두점은 그 앞과 뒤를 띄어 쓴다. 다만, 온점(.)과 쉼표(,)에서는 그 뒤만 띄어 쓴다.

③ 표제와 책임표시 사항에서 ‘: 표제관련정보’와 형태사항에서 ‘; 크기’는 해당 요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④ 형태 사항에서의 구두점은 ‘. --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 기타 형태사항 ; 크기 + 딸림자료’로 작성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기술 구두점 체계와 각 구두점의 띄어쓰기·반복 사용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ISBD의 기술 요소, 배열 순서, 구두점 체계를 준용한다. 기술 요소를 구분하는 구두점은 원칙적으로 앞뒤를 띄우며, 온점과 쉼표는 뒤만 띄운다. 같은 요소가 반복된다고 해서 그 요소 앞의 규정 구두점을 모두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반복 허용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한국목록규칙 제4판은 ISBD에서 정한 기술 요소와 그 순서 및 구두점을 준용하므로 옳다.
② O — 요소 간 구분 표시인 구두점은 앞뒤를 띄는 것이 원칙이며, 온점(.)과 쉼표(,)는 앞을 띄지 않고 뒤만 띄므로 옳다.
③ X — 틀린 부분은 형태사항의 ‘; 크기’도 크기가 2개 이상이면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 표제관련정보’는 표제관련정보가 둘 이상일 때 반복할 수 있지만, 크기는 반복 요소가 아니므로 ‘; 크기’를 반복하지 않는다.
④ O — 형태사항은 ‘. --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 기타 형태사항 ; 크기 + 딸림자료’의 순서와 구두점으로 기술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표제관련정보와 크기를 모두 ‘2개 이상이면 구두점을 반복하는 요소’로 묶은 것이 함정이다.
표제관련정보는 반복할 수 있지만 크기는 반복 요소가 아니므로 두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두점 문제는 먼저 형태사항의 기본 배열인 ‘수량 : 기타 형태사항 ; 크기 + 딸림자료’를 확정한 뒤, 각 요소가 반복 가능한지를 따로 판단한다. 요소의 값이 여럿이라는 사실과 그 앞 구두점의 반복 허용 여부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형태사항은 ‘수량 : 기타 ; 크기 + 딸림’, 반복은 ‘표제관련정보 O, 크기 X’이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국제목록원칙(ICP) 2016'에서 제시한 일반원칙 중 하나를 기술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목록규칙의 규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특정 상황에서 모든 규칙을 준수할 수 없다면 논리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① 관용성
② 논리성
③ 합리성
④ 상호운용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제목록원칙(ICP) 2016의 일반원칙 가운데 목록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타당한 근거에 따라 적용하게 하는 원칙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합리성은 목록규칙의 규정에 타당한 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적용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모든 규칙을 동시에 지킬 수 없는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택하며 그 근거를 제시한다.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목록·시스템 사이에서 서지 및 전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관용성 X
틀린 표현은 '관용성'이다. 지문은 관습이나 익숙한 용법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결책의 근거를 제시하는 원칙을 설명하므로, 올바르게는 '합리성'이다.

② 논리성 X
틀린 표현은 '논리성'이다. 지문에 '논리적으로'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해결책이 갖추어야 할 성질을 나타낸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ICP 2016의 일반원칙 명칭은 '합리성'이다.

③ 합리성 O
규정은 타당해야 하고 임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예외 상황의 해결책에도 실용성과 근거가 요구된다는 설명은 합리성 원칙에 해당한다.

④ 상호운용성 X
틀린 표현은 '상호운용성'이다.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목록·시스템 간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에 관한 원칙이다. 지문처럼 규칙 적용의 비자의성 및 해결책의 근거 제시를 다루는 원칙은 '합리성'이다.

오답 포인트

지문에 '논리적으로 타당', '논리적으로 적용가능'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② 논리성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지문의 개별 단어가 아니라 '자의적 적용 금지와 근거 제시'라는 설명 전체에 대응하는 공식 원칙명은 합리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칙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예외적 해결책에도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면 합리성으로 판단한다.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공유·재사용이 핵심이면 상호운용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의적 적용 금지·해결책의 근거 제시 = 합리성, 데이터 공유·재사용 = 상호운용성이다.

NoteBase

문 21. 다음 중 주제전거 데이터 기능 요건(FRSAD) 개념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용자 과업을 탐색, 식별, 선정, 관계부여로 제시하였다.

② 테마의 속성은 유형, 스킴, 참고정보원, 표현, 언어, 문자, 문자 변환, 형식, 유효 범위, 이용대상자, 상태 등이 있다.

③ 노멘은 FRSAD 모형의 개체인 이름, 식별기호, 제어형 접근점 개체를 포괄하는 상위 클래스이다.

④ '저작은 테마를 주제로 갖는다/테마는 저작의 주제이다', '테마는 노멘을 명명으로 갖는다/노멘은 테마의 명명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FRSAD의 핵심 개체인 테마(thema)와 노멘(nomen), 두 개체의 속성, 이용자 과업 및 개체 간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테마는 저작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뜻하고, 노멘은 테마를 알려 주거나 지칭하는 명칭·기호 등의 표현을 뜻한다. FRSAD의 기본 구조는 '저작-테마-노멘'이며, 저작은 테마를 주제로 삼고 테마는 노멘으로 명명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이용자 과업에 '관계부여'를 포함한 부분이다. FRSAD의 이용자 과업은 탐색(find), 식별(identify), 선정(select), 탐구(explore)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스킴, 참고정보원, 표현, 언어, 문자 등을 모두 테마의 속성으로 본 것이다. 테마의 속성은 유형과 범위 주기이며, 스킴·참고정보원·표현·언어·문자·문자 변환·형식·유효기간·이용대상자·상태 등은 노멘의 속성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이름, 식별기호, 제어형 접근점을 'FRSAD 모형의 개체'라고 한 부분이다. 이들은 FRAD에서 제시된 개체이며, FRSAD의 노멘은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 클래스에 해당한다.
④ O — FRSAD에서는 '저작은 테마를 주제로 갖는다/테마는 저작의 주제이다'와 '테마는 노멘을 명명으로 갖는다/노멘은 테마의 명명이다'라는 상호 역관계가 성립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explore를 '관계부여'로 바꾸었고, ②는 노멘의 속성을 테마의 속성으로 옮겼으며, ③은 FRAD와 FRSAD의 개체를 바꾸어 놓았다. 비슷한 서지 개념모형의 용어가 섞여 있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FRSAD 문항에서는 먼저 '저작-테마-노멘'의 연결을 확인한 뒤, 테마는 주제 대상이고 노멘은 그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기준으로 속성과 관계를 나누어 판단한다. 이용자 과업은 탐색·식별·선정·탐구의 네 가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저작의 주제는 테마, 테마의 명명은 노멘이다. 이용자 과업은 탐색·식별·선정·탐구이다.

NoteBase

문 22. 다음 중 듀이십진분류법(DDC)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열체계에서 800(문학)은 학문(영역), 언어, 형식, 지리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학문에 의해 주제가 분산되고 주제는 학문에 종속되는 구조로, DDC 구조의 기본원리는 학문이다.

③ 주요 클래스(주류 배열)는 베이컨의 학문 분류의 역순에 기반을 둔 해리스 분류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④ 분류 기호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듀이십진분류법(DDC)의 학문 중심 구조, 주류 배열의 사상적 계보, 분류기호의 계층성, 800 문학류의 배열 순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DC는 지식을 학문 영역별로 먼저 나눈 뒤 각 학문 안에서 주제를 전개하는 학문 중심의 열거식 분류법이다. 같은 주제라도 다루는 학문이 다르면 서로 다른 곳에 배정될 수 있다. 800 문학류의 기본 배열은 학문(문학) 다음에 언어, 문학형식, 시대의 순으로 전개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배열 순서의 마지막을 '지리'라고 한 부분이다. 800 문학류는 학문(문학) → 언어 → 문학형식 → 시대의 순으로 전개되므로, '지리'는 '시대'로 고쳐야 한다.
② O — DDC는 주제를 학문별 관점에 따라 배치한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도 학문에 따라 여러 류에 분산될 수 있고, 주제는 해당 학문의 체계에 종속된다.
③ O — DDC의 주류 배열은 베이컨의 학문 분류를 역순으로 재배열한 해리스 분류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베이컨의 학문 분류 → 해리스의 역순 배열 → DDC 주류 배열'의 계보가 성립한다.
④ O — DDC의 분류기호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전개되는 계층적 구조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기호가 길어질수록 더 세분된 개념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①의 '지리'는 분류에서 자주 쓰이는 패싯이어서 그럴듯하지만, 800 문학류에서 언어와 문학형식 다음에 오는 핵심 구분은 시대이다. 900 역사·지리류의 명칭과 혼동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DC 이론 선지는 세 축으로 판단한다. 먼저 주제가 아니라 학문이 기본 배열 원리인지 확인하고, 문학류는 언어 → 형식 → 시대의 순서를 적용하며, 분류기호는 일반 개념에서 구체 개념으로 내려가는 계층성을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DDC는 학문 중심, 800은 언어·형식·시대, 기호는 계층적 구조이다.

NoteBase

문 23.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스어 ‘질서화하다 또는 배열하다’에서 파생된 ‘분류’와 ‘법 또는 과학’을 조합한 용어로 유기체를 계통구분하기 위한 분류학의 일종이자 기법이다.

① 범주화
② 택소노미
③ 폭소노미
④ 구조적 분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어원과 유기체의 계통적 분류라는 단서를 통해 택소노미를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택소노미(taxonomy)는 대상을 일정한 원리와 위계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분류 체계 또는 분류학이다. 어원상 '질서화·배열'과 '법·과학'의 결합이며, 본래 생물의 계통적 분류에서 발달했다.
범주화는 공통 속성에 따라 대상을 묶는 일반적 인지·분류 행위이고, 폭소노미는 다수 이용자가 자유롭게 붙인 태그로 형성하는 협력적 분류 방식이다. 구조적 분석은 대상의 구성 요소와 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범주화'는 공통 속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범주에 묶는 일반적 행위이다. 지문의 어원과 유기체의 계통적 분류 기법을 가리키는 올바른 표현은 '택소노미'이다.
② O — '택소노미'는 질서화·배열을 뜻하는 그리스어 계열의 말과 법·과학을 뜻하는 말이 결합한 용어로, 유기체를 계통적으로 분류하는 분류학에서 비롯되었다.
③ X — '폭소노미'는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태그를 붙여 만드는 협력적·사회적 분류 방식이다. 지문처럼 전문적 원리와 계통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은 '택소노미'이다.
④ X — '구조적 분석'은 대상의 구성 요소와 요소 간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지문이 설명하는 분류 체계 또는 분류학은 '택소노미'이다.

오답 포인트

① 범주화도 대상을 나누는 활동이고 ③ 폭소노미도 분류와 관련되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어 어원', '유기체', '계통구분', '분류학'이 함께 제시되면 택소노미를 뜻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문가가 정한 위계적 분류 체계는 택소노미, 이용자가 자유롭게 붙인 태그 중심의 분류는 폭소노미, 공통 속성으로 묶는 일반적 행위는 범주화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택소노미는 위계와 질서, 폭소노미는 이용자와 태그이다.

NoteBase

문 24. 다음 중 한국목록규칙 제4판의 기술 총칙에 나열된 '기술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복합 매체 자료(예: 어학교육용 녹음자료와 텍스트)의 경우, 모든 매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② 별법으로, 고유한 표제를 지닌 합집이나 총서 전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KCR4는 원칙적으로 개별저작을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④ 복제물은 그 대본인 원자료와 복제물 자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국목록규칙 제4판에서 자료의 형태와 구성 방식에 따라 무엇을 하나의 기술 대상으로 삼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술의 대상은 하나의 서지레코드에서 식별하고 설명하려는 자료 단위이다. KCR4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복합매체자료는 주된 매체를, 복제물은 복제물 자체를 기술한다. 합집이나 총서에서는 수록된 개별저작을 기술할 수 있고, 별법으로 고유한 표제를 지닌 합집이나 총서 전체도 기술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복합매체자료에서 '모든 매체'가 기술 대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어학교육용 녹음자료와 텍스트처럼 여러 매체가 결합된 자료는 주된 매체를 기술 대상으로 한다.
② O — 고유한 표제를 지닌 합집이나 총서는 별법으로 그 전체를 기술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X — '원칙적으로 개별저작'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KCR4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자료를 기술 대상으로 하며, 합집이나 총서에 수록된 개별저작은 기술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④ X — '원자료와 복제물 자체를 모두' 기술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복제물은 원자료가 아니라 복제물 자체를 기술 대상으로 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별법'과 ③의 '원칙적으로'를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개별저작은 기술할 수 있는 대상이고, 고유 표제가 있는 합집·총서 전체는 별법으로 기술할 수 있지만, 개별저작 자체가 KCR4의 원칙적 대상이라고 표현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합매체는 주된 매체, 복제물은 복제물 자체, 합집·총서는 개별저작 또는 고유 표제가 있는 전체라는 기준으로 각 선지의 대상 단위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복합은 주된 매체, 복제는 복제물 자체, 고유 표제 합집·총서는 전체도 가능하다.

NoteBase

문 25. 다음은 AACR2와 RDA 용어의 비교표이다. 용어 간 비교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ACR2: 표목, RDA: 전거형 접근점

② AACR2: 기본 기입, RDA: 우선 표제

③ AACR2: 보라 참조, RDA: 이형 접근점

④ AACR2: 이름의 형식, RDA: 우선정보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AACR2의 카드목록 중심 용어가 RDA에서 어떤 개체·속성 및 접근점 중심 용어로 바뀌었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거형 접근점은 하나의 개체를 일관되게 나타내도록 표준화한 접근점이고, 이형 접근점은 그 전거형 접근점으로 안내하는 대체 형식이다. 우선 이름은 개인·가족·단체 등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선택한 이름이며, 우선정보원은 자원의 표제·책임표시 등을 채택할 때 먼저 확인하는 정보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ACR2의 표목은 목록에서 검색의 표준 형식으로 쓰였으며, RDA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용어로 전거형 접근점을 사용한다.
② O — AACR2의 기본 기입이 저작을 대표하는 중심 기입을 정하던 방식이라면, RDA에서는 저작의 우선 표제를 바탕으로 저작을 식별한다. 따라서 이 문항의 용어 비교에서는 대응 관계로 볼 수 있다.
③ O — AACR2의 보라 참조는 비채택 형식에서 채택 형식으로 안내하는 참조이다. RDA의 이형 접근점도 우선 이름이나 우선 표제 이외의 형식으로 전거형 접근점에 접근하게 하므로 기능이 대응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우선정보원'이다. AACR2의 '이름의 형식'에 대응하는 RDA 용어는 '우선 이름'이다. 우선정보원은 이름의 채택 형식이 아니라 기술할 정보를 어느 정보원에서 우선 채택할지를 나타내는 별개의 개념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우선 이름'과 '우선정보원'은 모두 '우선'으로 시작하지만 대상이 다르다. 우선 이름은 개체의 이름을 선택하는 개념이고, 우선정보원은 자원에서 기술 정보를 채택하는 출처에 관한 개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어 뒤의 목적어를 확인한다. 사람·단체 등의 이름 형식을 고르는 문제이면 '우선 이름', 검색을 위한 표준 형식이면 '전거형 접근점', 다른 이름 형식이면 '이형 접근점', 기술 정보의 출처이면 '우선정보원'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표목→전거형 접근점, 보라 참조→이형 접근점, 이름의 형식→우선 이름이다. 우선정보원은 이름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이다.

NoteBase